

Yeosu Web Contents

2024년 04월 20일 12시 31분



목차

목차	2
대포4리	3
마을유래(□□)	3
지명유래(□□□□)	3
장전(□□)	3
노촌(□□)	3
마전(□□)	3

대포1리	대포2리	대포3리	대포4리	덕양1리
덕양2리	덕양3리	덕양4리	덕양5리	덕양6리
관기1리	관기2리	관기3리	복산1리	복산2리
복산3리	복산4리	복산5리	복산6리	봉두1리
봉두2리	봉두3리	사곡1리	사곡2리	사곡3리
사곡4리	죽림(1~17리)	현천1리	현천2리	현천3리

마을유래(☒☒)

본 마을에는 동북오씨가 일가족을 데리고 (1700년추정)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전하며 그후 울촌면 신흥산곡에서 강릉유씨 등 여러성씨가 이주해와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지명유래(☒☒☒☒)

장전(☒☒)

옛날 농업이 발달하기 전에 이곳 마을앞에는 온 들이 밭이었다고 하며 마을 안골에는 긴 산등성이 뻗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산등선이가 길어서 첫째 긴장(☒)자가 붙었고 둘째, 밭이 많아서 발전(☒)자를 써서 장전(☒☒)이란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시설 원예가 상당히 발달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이르는 곳은 하루고개로 마을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산에 나무를 하러 갈때 산이 높고 길이 꼬불꼬불하며 꼬박 하루가 걸렸다 하여 생겨난 이름이고 하루고개 중턱에는 바위의 모양이 범같이 생겼다가하여 붙여진 범바위가 있다.

노촌(☒☒)

옛날에는 어디를 막론하고 내왕이 많은 길목에는 길손들이 쉬어가는 주막(☒☒)이나 객점(☒☒)이 있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옛날 여수에 전라좌수영이 있고 순천에 순천부가 있었을 때 양쪽 관원들의 내왕도 빈번했을 것이고 거기에 장사치들이나 일반인의 내왕도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동리 뒷등에는 원터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의 지금도 옛날 기와장이 더러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옛날에는 교통의 요지마다 원(☒), 역(☒), 침을 두었음으로 이 노촌이 옛날의 원터였기 때문에 길손들이 쉬어가는 주막이나 객점이 있었고 그것이 이 마을 길목이었기 때문에 길손들이 쉬어가는 주막이나 객점이 있었고 그것이 이 마을 길목이었기 때문에 길노(☒)자와 마을촌(☒)자를 써서 노촌이라 부르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것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마전과 노촌의 중간 지점에 원터가 있어 더욱 옛일을 되새기게 한다.

마전(☒☒)

이 마을이 마전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구 한말때부터라고 여겨진다. 이곳에서 3대차 살아오는 권성조(권성조:1939.8.15)에 (<http://www.yeosu.go.kr>)

의하면 그의 종조때부터 울촌 산곡에서 살려다 이 마을로 이사 왔는데 옛날에 이곳에 관이 경영하는 원(원)이 있었고 그 원에서 소요되는 말을 길은데서 말을 먹이는 밭이라는 뜻에서 마전이란 지명이 나왔다고 한다. 그 증거로는 이 마을 윗등에 원터가 있으며 지금도 거기서 기와장이 더러 나온다는 것이다.

한편 지금 장전(장전)을 비롯한 대포 일원에서 시설 원예가 많이 발전한 것도 1963년도에 권성조가 600평의 땅에 시설 하우스를 제일 먼저 시작한 뒤 이봉의(이봉의)에 이어졌고 그 다음으로 백영순 오기창이 재배 시작하여 오늘날 대포 일원이 시설하우스의 선지 부락이 된 것이라고 한다.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여수시